주식전략

반도체 외에도 좋은 업종은 많다

분석의 기본 가정

- 1)차익실현에 따른 조정, 2)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리스크인 것은 사실
- 대형 수출 업종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화학, 소비재, 금융의 전반적인 펀더멘털 개선 중

주식전략 이상연
T.02)2004-9045
lee.sang-yeon@shinyoung.com

5월 미리보기: 파도가 있더라도 증시를 떠날 시간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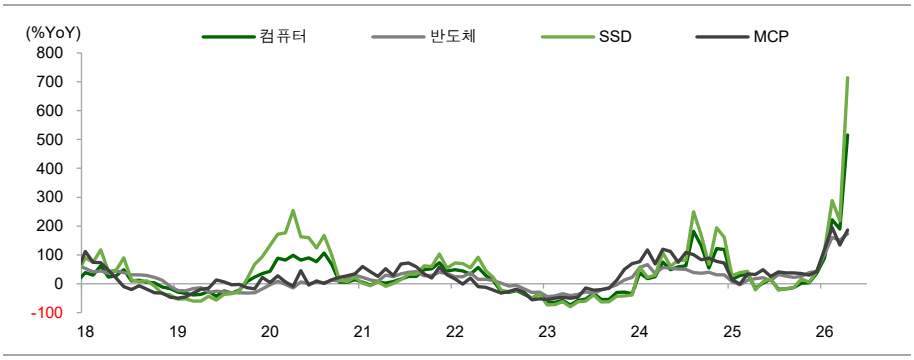
이미 실적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매크로 측면에서도 고유가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다만, 이로 인한 조정이 발생한다면 증시의 상승 추세 훼손이 아니라 단기 과열을 완화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최근 지수 절대 레벨 상승에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상승이 단순한 멀티플 확장이 아닌 기업 펀더멘털 개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 측면에서는 여전히 IT 하드웨어, 상사·자본재(방산), 기계 등 대형 수출주를 최선호하나 계절적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인바운드 소비 관련 업종도 관심 영역이다. 다만 외부 변수로 시장 탄력이 급격히 둔화될 경우 건강관리, 증권 등 수급 빈집 업종으로의 단기 로테이션 가능성 또한 열어둘 필요가 있다.

실적이 끝나면 정책이 온다(2): 코스닥은 아직 시간이 있다

실적 모멘텀 둔화에 따른 증시 조정기라면 정책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한다. 다만 최근 관심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일정상 정책 구체화까지 시차가 존재해 현시점에서의 본격적인 접근은 다소 이르다는 생각이다. 현재까지는 하반기 내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1·2부 분리)과 지수·ETF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관련해서는 반도체 소부장, 미용·의료기기, 로보틱스 등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 기반 대형주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1. 주요 품목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자료 : 산업통상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5월 미리 보기: 파도가 있더라도 증시를 떠날 시간은 아니다

5월의 리스크
1)차익실현에 따른 조정
2)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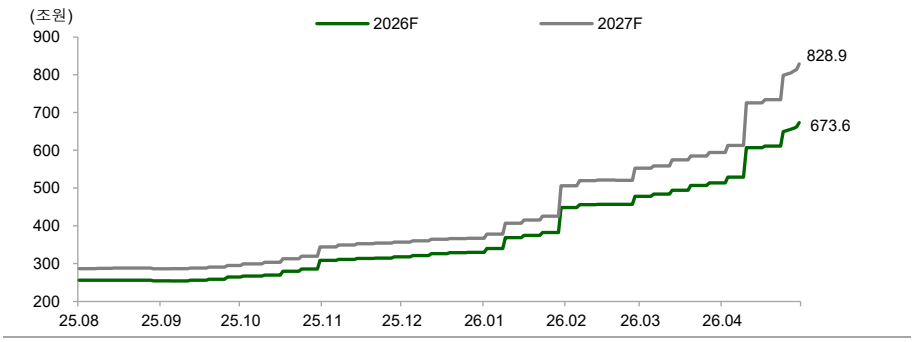
5월 시장은 이미 실적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단기적으로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매크로 측면에서도 고유가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잠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증시에 머물러야 할 시간

다만 이러한 요인에 따른 지수 조정은 추세 훼손이라기보다 상승을 위한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 과정과 오히려 단기 과열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조정에 해당한다. 최근 지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레벨에 근접하면서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아직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는 현재의 상승이 단순한 멀티플 확장이 아니라 기업 펀더멘털 개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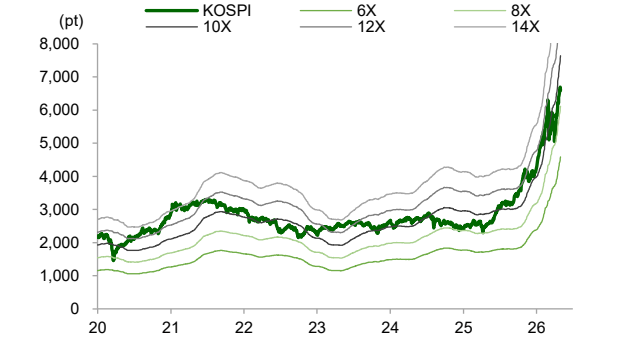
4월 30일 기준 2026F, 2027F KOSPI 순이익은 각각 673.6조원, 828.9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초 추정치보다 104.1%, 125.7% 상향 조정된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여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두 기업을 제외한 전체 순이익도 각각 연초대비 13.4%, 16.1% 상향 조정되어 반도체 only의 펀더멘털 개선은 아닌 상황이다. KOSPI의 12개월 선행 PBR(1.6배)은 역사적 상단에 해당하나 PER(7.1배)은 밴드 하단에 위치해 충분히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도표 2. KOSPI 순이익 추정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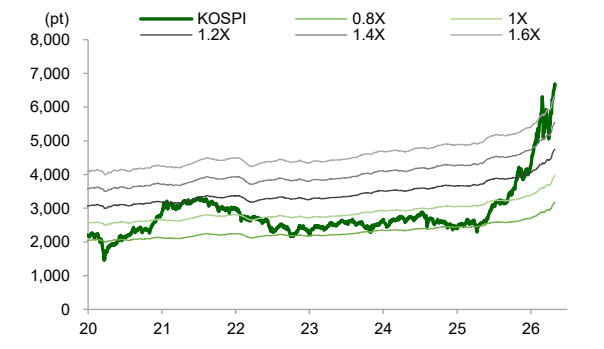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KOSPI PER 밴드 차트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KOSPI PBR 밴드 차트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최선호 업종은 여전히 대형 수출주: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방산), 기계

특히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AI 투자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제조업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단기적으로는 업종 순환매와 수급 확산 과정 속에서 부침이 있어 보일 수 있겠으나 연내 주도 업종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방산), 기계 등 대형 수출주 중심의 전략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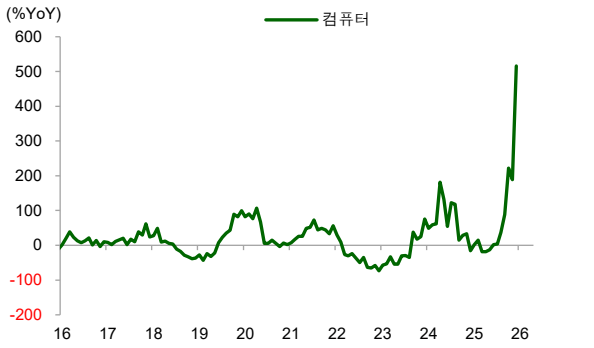
컴퓨터, 반도체, 선박, 석유제품의 수출 호조

4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이와 동일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15대 주요 수출품목 중 전년동기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품목은 컴퓨터(+515.8%YoY), 반도체(+173.5%YoY), 선박(+43.9%YoY), 석유제품(+39.9%YoY) 순이였다. 컴퓨터의 경우 완제품 보다는 AI 인프라 구축 수요에 따른 SSD(+714.4%Yoy)의 수요가 전체 수출 상승을 견인했다. 반도체의 경우도 HBM을 포함한 MCP(+186.6%YoY) 부문이 견조한 성장세에 기여했다.

소비재의 수출 개선세도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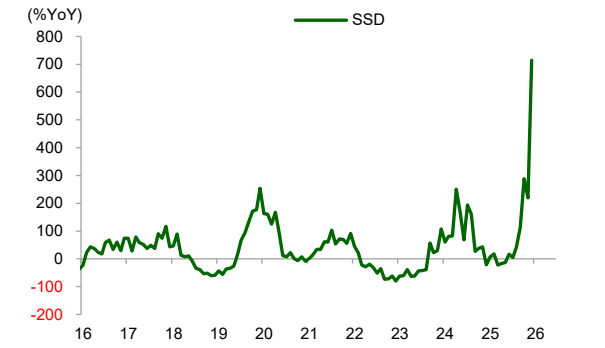
물론 IT 이외에도 5대유망수출품목 중 화장품(+33.4%YoY)과 의류(+27.7%YoY)의 수출 개선세도 반가운 소식이다. 증시 측면에서는 최근 수급이 소비재로 분산되고 있는 흐름과 무관해보이지 않는다. 향후에도 테크 쏠림 강화에 대한 경계심리가 대두되거나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찾고자하는 수요가 강해질 때 소비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도표 5. 컴퓨터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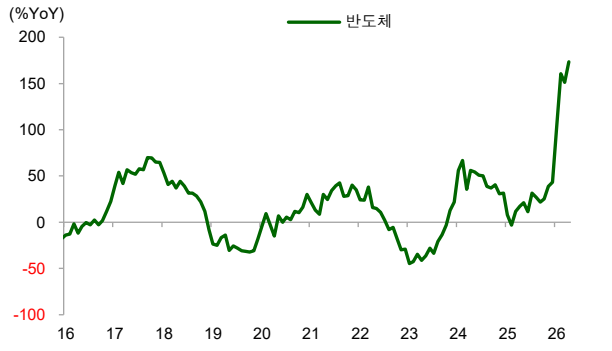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산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6. SSD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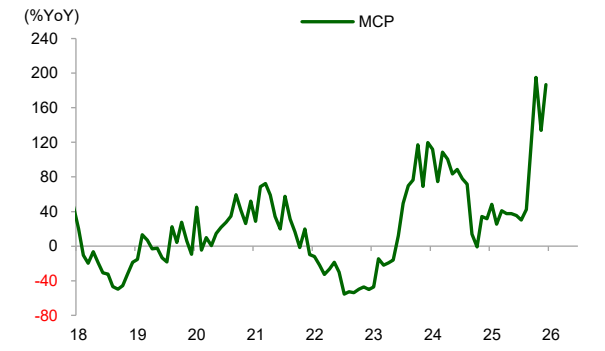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산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반도체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자료 : 산업통산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MCP 수출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자료 : 산업통산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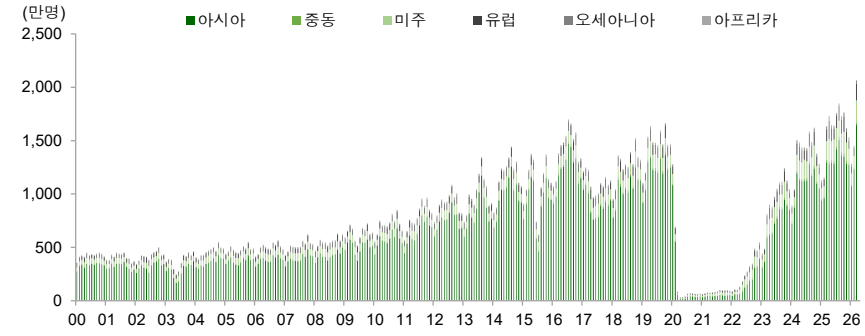
테크의 쏠림이 과하다면 인바운드 소비 업종도 관심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 또다른 테크 업종 쏠림의 대체재로서 인바운드 소비 업종에 대한 관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적 개선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증시가 단기적으로 쉬어가거나 비테크 업종으로 관심이 분산될 때 관광객 증가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플로우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이 관광 수요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하나 시기적으로 5월은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주요국 연휴가 집중되는 구간이다. 특히 항공료 상승으로 장거리 여행 부담이 커질 경우 오히려 역내 단거리 여행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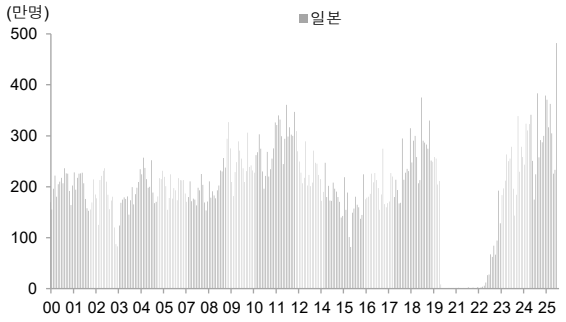
여전히 국내 관광업계의 핵심 타깃은 아시아 관광객이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높다. 그런데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아직 직전 호황기였던 2016년은 물론 2019년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작년부터 이어진 중·일 갈등, 우호적인 환율 여건, 지리적 접근성까지 감안하면 한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대체 여행지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5월 연휴 시즌을 전후로 백화점, 호텔/레저, 카지노, 화장품 등 인바운드 소비 업종에 대한 관심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도표 9. 권역별 한국 입국자 수 추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타깃층은 아시아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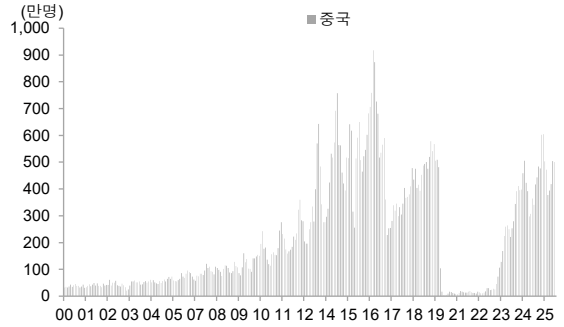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일본 국적 한국 입국자 수 추이: 월간 기준 최고치 기록



자료 : 한국관광공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중국 국적 한국 입국자 수 추이: 피크 아웃은 아닌 상황



자료 : 한국관광공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미·중 정상회담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을 고려는 할 필요

다만, 외부 변수 측면에서는 대외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국면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경계는 필요하다. 미·중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언론에 노출되는 강경 발언이나 갈등 관련 뉴스 역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술적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수준의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탄력이 일부 둔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도주 중심의 흐름이 완만해지며 업종 간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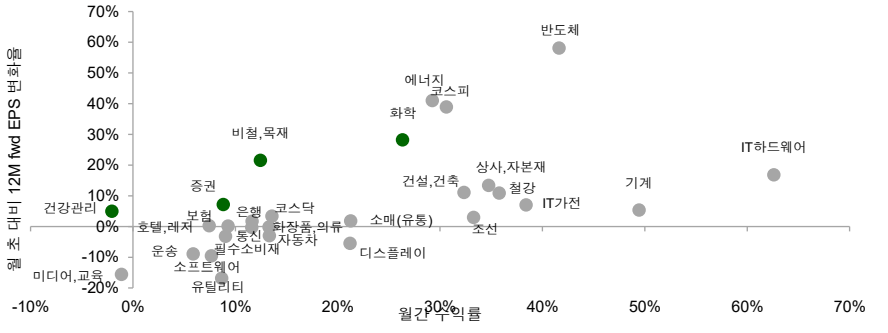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는 '싼 업종'을 찾자 : 건강관리, 증권, 비철/목재, 화학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주도 업종의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싼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싼 업종'은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업종이 아니라 최근 이익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나 수급 요인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다. 현재로서는 건강관리, 증권, 비철/목재, 화학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증시가 강한 상승 국면에서는 실적 가시성이 높은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지수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업종으로 단기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까지 수급 공백이 컸던 업종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반등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중국은 펜타닐 관세를 없애고 싶고 미국은 희토류가 필요하다

현재 미·중 관계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반도체, AI, 희토류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의 패권 경쟁 구도로 고착화된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역시 비교적 명확하다. 중국은 펜타닐 이슈를 명분으로 부과된 관세 철회와 더불어 첨단 반도체 및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희토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양국 모두 전략 산업에서의 주도권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만큼 협상의 결과가 극적인 타결보다는 '관리된 갈등' 하에서의 제한적인 완화 조치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도표 12. 시장이 싼 업종을 찾는다면: 건강관리, 증권, 비철/목재, 화학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실적이 끝나면 정책이 온다(2): 코스닥은 아직 시간이 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

실적 모멘텀 둔화에 따른 증시 조정기라면 정책 모멘텀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한다. 다만 최근 관심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일정상 정책 구체화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의 본격적인 접근은 다소 이르다는 판단이다.

현재로서 코스닥 정책 구체화는 하반기의 이벤트

현재까지는 하반기 내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프리미엄(1부), 스탠다드(2부) 분리)과 이에 연계된 지수 및 ETF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의 상장·공시 규정 개정과 함께 업계 내 협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금 직면한 단기 이벤트라기보다는 하반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3월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를 앞두고 1월 말 선제적인 자금 유입이 나타났던 사례를 감안하면 아직은 코스닥을 핵심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기에는 최적의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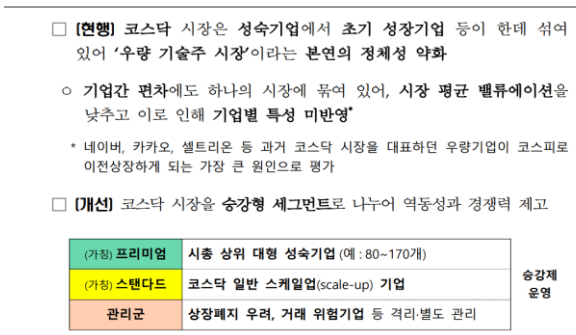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은 지극히 현실적인 방안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은 단기간 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책 기조가 '다산다사'로 요약되며 거래소와 정책당국의 시장 구조 개선 의지가 확인되고 있으나 상장폐지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 이슈로 인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시장 내 등급을 구분하는 방식은 자금의 선별적 유입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코스닥 내에서의 실적 기반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

프리미엄 시장의 구체적인 상장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가총액, 매출액, 수익성, 지배구조 등이 핵심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프리미엄 시장 편입 기업에는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및 영문공시 확대 등이 요구되면서 사실상 유가증권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규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 내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미용·의료기기, 로보틱스 등 실적 기반 대형주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 향후 지수 개발과 ETF 도입까지 이어질 경우, 실적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이 포함된 프리미엄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표 13.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 배경 및 방안



□ **[현행] 코스닥** 시장은 **성숙기업**에서 **초기 성장기업** 등이 한데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본연의 정체성 약화**

○ **기업간 편차**에도 하나의 시장에 묶여 있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이로 인해 **기업별 특성 미반영***

*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 과거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던 우량기업이 코스피로 이전상장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

□ **[개선]** 코스닥 시장을 **승강형 세그먼트**로 나누어 역동성과 경쟁력 제고

(가칭) **프리미엄**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 (예 : 80~170개)	승강제 운영
(가칭) **스탠다드**	**코스닥 일반 스케일업**(scale-up) **기업**	
관리군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 격리·별도 관리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4.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추진 로드맵(26.03.18)

다. 혁신		
1.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 활성화		
1-1. 코넥스 상장 관련 수수료 지원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확대	상장시 수수료 지원 프로그램 운영	'26.6월 계속
1-2. 코넥스 투자펀드 확대 조성·운영	펀드 확대계획 마련	'26.9월
1-3. 지정자문인 참여유인 확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26.6월
2.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및 역동성 제고		
2-1.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분야 확대	거래소 규정 시행세칙 개정	'26.下
2-2. 공적자금 VC 평가·만기 제도개선	개선방안 마련 후기부	'26.6월
2-3. 금투업권 회수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	공급 촉진방안 검토	'26.6월
2-4. 세그먼트(Segment) 도입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	'26.下
2-5. 프리미엄 대표지수·ETF 도입	지수개발 및 ETF출시 준비	'26.下
3. 국민성장펀드·대형IB 모험자본 공급 본격 가동		
3-1. 국민성장펀드·대형IB 집행·점검	모험자본 공급 점검체 가동	'26.4월

자료 : 금융위원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5. KOSDAQ 주요 상장사 목록

코드	기업명	업종	시가총액 (조원)	영업이익(조원)			순이익(조원)			26F		
				26F	27F	YoY	26F	27F	YoY	P/E	P/B	ROE
247540	에코프로비엠	IT가전	20,153	111.2	214.9	93.3	49.2	126.0	156.3	529.6	11.8	2.2
196170	알테오젠	건강관리	19,727	325.2	543.0	67.0	264.9	447.2	68.8	73.5	32.2	50.9
058470	리노공업	반도체	9,092	215.3	262.0	21.7	185.3	225.0	21.4	49.1	10.6	23.3
036930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5,857	66.6	159.6	139.7	66.3	150.2	126.7	88.6	8.8	10.7
039030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5,766	130.2	167.3	28.5	113.4	144.3	27.3	50.9	7.7	15.8
240810	원익IPS	반도체	5,748	184.6	281.1	52.3	160.1	237.3	48.2	35.9	5.1	15.3
095340	ISC	반도체	5,140	99.0	139.1	40.4	89.2	120.8	35.4	57.9	8.5	15.6
108490	로보티즈	기계	4,639	9.3	21.0	126.7	10.2	19.1	86.5	418.6	14.5	3.5
403870	HPSP	반도체	4,329	128.9	166.8	29.4	107.8	139.1	29.1	40.3	11.0	30.9
214150	클래시스	건강관리	3,627	234.3	302.3	29.0	186.5	238.9	28.1	19.6	5.1	29.4
357780	솔브레인	반도체	3,563	202.3	254.9	26.0	164.7	204.9	24.4	22.2	2.9	14.2
178320	서진시스템	기계	3,542	203.2	327.9	61.4	133.9	244.3	82.5	27.3	4.2	16.4
064760	티씨케이	반도체	3,287	123.4	159.4	29.1	102.9	131.1	27.4	32.0	5.4	18.2
214450	파마리서치	건강관리	3,257	269.5	328.0	21.7	217.0	266.5	22.8	16.9	4.1	27.3
222800	심텍	IT하드웨어	3,249	141.0	228.0	61.7	90.2	159.9	77.4	36.2	5.2	14.9
237690	에스티팜	건강관리	3,179	74.3	97.9	31.7	67.3	91.1	35.5	46.8	5.0	11.0
145020	휴젤	건강관리	3,107	212.3	275.8	29.9	171.0	223.9	30.9	18.8	2.5	16.0
083650	비에이치아이	에너지	3,017	106.8	138.2	29.4	92.5	123.0	33.0	32.6	11.3	41.7
084370	유진테크	반도체	2,979	118.9	154.3	29.8	110.0	138.0	25.5	27.7	5.2	21.1
098460	고영	IT하드웨어	2,763	42.2	61.6	46.1	46.7	56.4	20.8	59.2	7.2	13.3
257720	실리콘투	소매(유통)	2,692	269.6	340.4	26.3	217.3	272.7	25.5	13.3	4.4	38.8
031980	피에스케이홀딩스	반도체	2,680	94.6	115.8	22.5	106.4	129.7	21.9	25.2	4.6	19.6
067310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2,639	251.6	320.9	27.5	151.3	216.6	43.1	23.9	5.1	24.0
082920	비츠로셀	IT가전	2,584	91.1	107.2	17.6	75.1	85.9	14.4	34.1	6.5	20.9
319660	피에스케이	반도체	2,569	130.3	168.7	29.5	112.3	142.6	26.9	22.9	4.0	19.1
131970	두산테스나	반도체	2,526	65.2	101.5	55.6	54.1	86.8	60.3	46.7	5.2	11.7
218410	RFHIC	IT하드웨어	2,504	52.0	73.4	41.2	49.6	67.0	35.1	60.5	6.6	11.8
078600	대주전자재료	IT하드웨어	2,461	34.9	45.0	28.9	30.4	42.6	40.3	81.3	8.8	11.5
035900	JYP Ent.	미디어,교육	2,235	169.0	188.8	11.7	129.1	143.7	11.3	17.3	2.9	19.2
041510	에스엠	미디어,교육	2,212	203.0	229.2	12.9	144.2	171.4	18.9	16.2	2.1	13.1
089030	테크윙	반도체	2,123	98.5	172.9	75.5	68.3	124.2	81.8	29.7	7.4	29.0
140860	파크시스템스	IT하드웨어	2,022	59.6	77.9	30.7	54.1	67.9	25.5	37.3	7.2	21.5
060370	LS마린솔루션	건설,건축	1,993	12.1	40.6	234.5	13.0	34.3	164.1	152.1	3.2	2.1
039200	오스코텍	건강관리	1,989	34.0	138.0	305.9	34.0	126.0	270.6	62.2	9.7	16.6
131290	티에스이	반도체	1,867	89.5	108.7	21.5	74.6	89.4	19.8	26.1	4.2	17.0
099320	쎄트렉아이	상사,자본재	1,818	17.4	27.3	56.3	15.1	23.3	54.0	113.4	6.9	6.3
458870	씨어스	건강관리	1,814	45.9	69.0	50.4	44.3	63.5	43.3	41.5	21.8	71.2
232140	와이씨	반도체	1,793	48.9	67.4	37.8	43.9	58.5	33.4	61.3	4.5	7.6
095610	테스	반도체	1,626	88.9	112.4	26.4	80.2	99.4	24.0	20.3	3.3	18.9
290650	엘앤씨바이오	건강관리	1,570	24.7	64.5	161.1	7.3	52.1	610.1	156.5	7.0	4.9

주1) 2027F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존재하며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인 경우에 한해 시가총액 기준 내림차순으로 정렬
주2) 위의 기준으로 단순 필터링한 결과로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이 아님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증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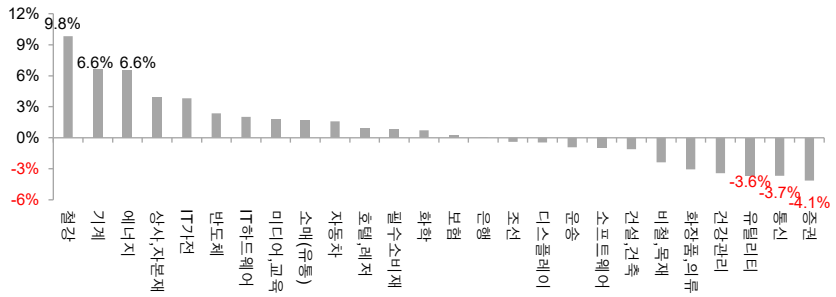
4/30 KOSPI 종가 7,396pt로 주간 수익률 +6.6% 기록,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

지난주 KOSPI는 7,396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6.6%를 기록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를 경신하며 증시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부 업종별로는 철강, 기계, 에너지, 상사/자본재(방산), IT가전, 반도체, IT하드웨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기존 주도 업종뿐만이 아니라 경기 민간 업종인 철강, 에너지도 강세를 보여 시장 상승의 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운송, 자동차, 미디어/교육,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지속

주요 업종의 이익 모멘텀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에너지, 화학, 산업재(건설/건축, 기계, 조선) 등 경기 민감업종과 소비재(화장품/의류, 유통)의 모멘텀 개선이 두드러진다. 더불어 수익률은 부진하지만 이익 모멘텀이 꾸준히 상향되고 있는 헬스케어, 금융(증권, 은행)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반면 운송, 자동차, 미디어/교육, 디스플레이는 강세장 속에서도 이익 모멘텀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도표 16.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4.30)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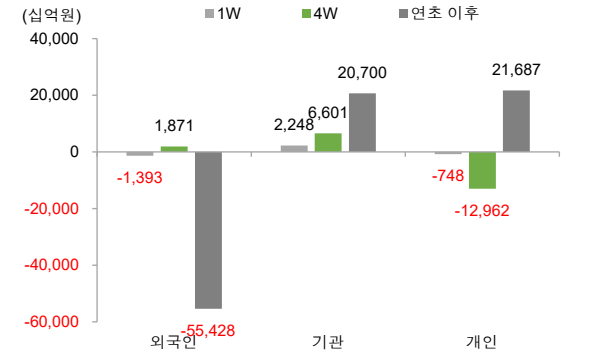
도표 17.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4.30)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4.03	04.10	04.17	04.24	04.30	04.03	04.10	04.17	04.24	04.30
KOSPI	-1.1	9.0	5.7	4.6	1.9	10.4	29.2	26.4	35.0	36.4
KOSDAQ	-6.8	2.8	7.0	2.9	-1.0	3.1	3.5	2.9	2.7	3.3
에너지	3.2	4.4	2.3	6.0	6.6	2.2	2.3	6.6	6.6	40.7
화학	-1.7	6.7	6.1	7.7	0.7	26.6	22.7	12.9	5.5	20.3
비철목재	0.5	6.1	5.7	-1.6	-2.4	5.1	7.5	3.1	6.0	6.0
철강	1.3	6.8	3.5	6.8	9.8	2.4	-0.7	-0.6	-1.8	-2.5
건설/건축	2.4	19.4	2.3	3.3	-1.1	-1.1	-0.9	0.3	8.6	11.1
기계	-2.0	7.1	8.7	14.0	6.6	2.0	2.3	3.1	3.7	5.0
조선	1.5	1.3	5.8	16.2	-0.4	2.4	1.7	1.9	1.5	3.2
상사/자본재	0.2	8.2	3.7	4.2	3.9	16.0	16.3	12.7	12.8	6.4
운송	-3.9	6.4	0.2	-0.9	-0.9	-0.3	-1.1	-8.6	-9.8	-8.3
자동차	-4.7	3.1	7.4	-2.9	1.6	1.0	-0.6	-1.0	-2.7	-3.8
화장품/의류	-3.6	7.6	5.2	4.8	-3.1	2.5	2.3	3.6	3.7	5.4
호텔/레저	-9.5	4.3	4.1	0.4	0.9	-3.5	-6.3	-0.6	-0.8	0.7
미디어/교육	-7.6	-1.2	4.6	-1.6	1.8	1.3	-1.9	-2.6	-4.3	-4.3
유통	-7.5	5.9	7.9	7.0	1.7	1.1	1.7	1.7	2.6	4.4
음식료/담배	-1.3	3.2	4.2	0.4	0.8	0.7	0.7	0.2	-0.8	-0.7
헬스케어	-10.3	0.3	4.7	-1.3	-3.4	0.9	2.0	1.5	3.5	4.0
은행	-3.7	7.7	2.7	-0.9	-0.0	0.9	0.9	1.0	1.4	1.6
증권	-5.7	8.4	3.9	-1.3	-4.1	2.4	5.3	6.5	7.7	7.1
보험	-2.5	5.3	4.6	-2.8	0.3	0.7	0.1	0.6	0.1	0.1
소프트웨어	-5.6	3.2	7.7	-1.0	-1.0	1.6	0.9	0.6	-0.3	-0.1
IT하드웨어	-0.2	14.4	12.5	13.8	2.0	7.1	7.2	7.1	7.2	11.6
반도체	0.0	12.7	6.8	4.5	2.4	14.7	45.7	41.2	55.1	57.7
IT가전	1.6	7.0	5.4	12.8	3.8	11.4	-3.4	-4.0	-5.5	4.1
디스플레이	-6.8	11.7	11.2	-1.4	-0.4	1.6	2.3	3.6	-5.7	-5.5
통신	-1.0	10.9	3.9	-1.3	-3.7	1.4	0.6	-0.0	-0.3	-0.2
유틸리티	-5.1	5.1	5.5	2.5	-3.6	1.4	0.6	-0.0	-0.3	-0.2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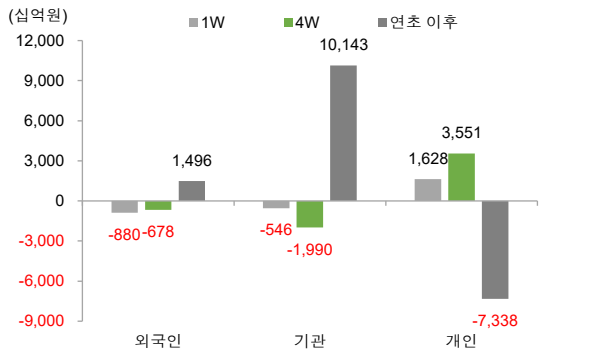
지난주 외국인은 KOSPI와 KOSDAQ 양 시장을 소폭이지만 모두 순매도 했다. 그럼에도 반도체, 에너지, 소매(유통), 철강, 보험에 대해서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순매도는 최근 상승폭이 컸던 기계(전력기기, 원자력, 로보틱스 등) 업종에 집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기관의 경우는 KOSPI를 순매수 했으나 KOSDAQ은 순매도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계, 에너지, IT가전, 철강을 순매수 한 반면 건강관리, 건설/건축,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증권을 순매도했다.

도표 18.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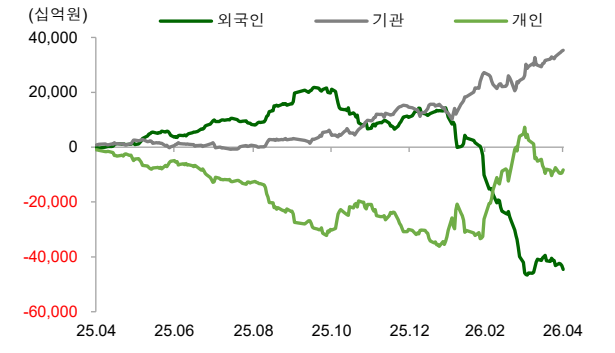
주) 2026.04.30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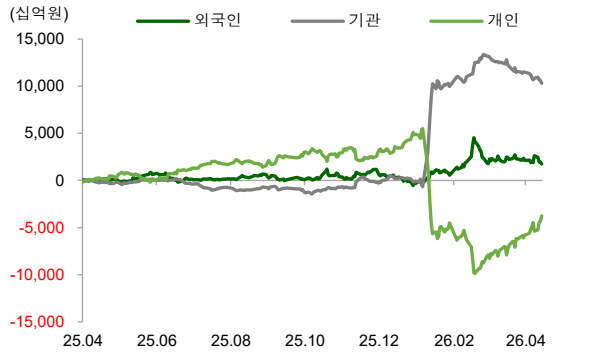
주) 2026.04.30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4.17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4.30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2.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반도체	805.9
	에너지	294.5
	소매(유통)	80.5
	철강	60.1
	보험	47.7
순매도 TOP5	기계	-1,328.9
	건강관리	-352.2
	IT하드웨어	-214.3
	상사,자본재	-187.8
	소프트웨어	-138.3

주) 2026.04.30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3.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반도체	1,728.3
	기계	559.9
	에너지	225.9
	IT가전	165.2
	철강	145.5
순매도 TOP5	건강관리	-460.6
	건설,건축	-184.5
	소프트웨어	-152.3
	IT하드웨어	-141.1
	증권	-121.3

주) 2026.04.30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5/1 미 4월 ISM 제조업 지수 한 4월 수출입 XOM, CVX
5/4 **BRKB, PLTR**	**5/5** **미 4월 ISM 서비스 지수** **미 3월 JOLTs** **AMD, ANET, PFE**	**5/6** **미 4월 ADP 취업자 변동** **DIS, APP, UBER, CVS, DASH**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심텍** **현대백화점, GS피앤엘, 에스엠** **카카오뱅크,**	**5/7** **MCD, GIL, ARM, ANB** **LG, 에이피알, 한국항공우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SK텔레콤** **HD한국조선해양, 카카오**	**5/8** **미 4월 고용지표** **미 4월 실업률** **미 5월 소비자신뢰지수** **파마리서치,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HDC,** **현대지에프홀딩스, 원익IPS**
5/11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에스오일, 시프트업, 데브시스터즈	5/12 미 4월 CPI 미래에셋증권, 한화생명, 펄어비스, CJ제일제당, 신세계, 달바글로벌	5/13 미 4월 PPI GS, SK이노베이션, CJ대한통운, 더블유게임즈	5/14 미중 정상회담(~15일) 미국 4월 소매판매 AMAT 삼성화재, 삼성생명, 메리츠금융지주, 이수페타시스	5/15 DB손해보험, 현대해상
5/18 SK, 오리온	5/19 HD	5/20 4월 FOMC 회의록 공개 NVDA, CSCO, TJX	5/21 WMT, DE, INTU	5/22
5/25 	5/26 PANW	5/27 LOW	5/28 BOK 금융통화위원회 미 1분기 GDP 잠정치 DELL	5/29 ASCO (~6/2)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